유난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입김은 도로 위를 흐릿하게 채웠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 아이가 발걸음을 멈췄다. 두툼한 목도리 속에서 얼굴만 겨우 내민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주머니에서 장갑 낀 손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참새를 손안에 감쌌다.

“춥지?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줄게.”

그 아이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다. 어머니는 새를 집에 데려온 아이를 보고 놀랐지만, 아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참새는 온기가 돌아오자 날개를 조금씩 퍼덕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손바닥 위에 참새를 올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 나으면 하늘로 다시 보내줄게.”

며칠 후, 참새는 날갯짓을 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와 어머니는 동네 공원으로 참새를 데리고 갔다. 아이는 손을 천천히 펼쳤고, 참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뿌듯함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참새가 떠난 자리에 눈이 내렸다. 아이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것들도 세상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